

전주영화산업 중심으로 자리매김

▶ 전주영화제작소를 올해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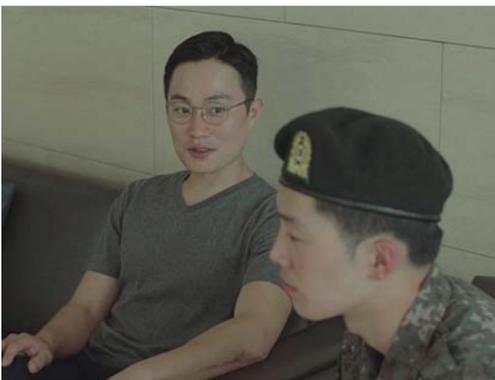
개봉예정작 관객설문조사로 인해
디지털독립영화관 관객수 늘어
후반제작 지원사업 분기별 운영
촬영 등 교육프로그램도 신설

올 한해에도 전주영화제작소는 관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봉작을 선정하는 '개봉예정작 관객설문조사'를 통해 관객들과 꾸준히 소통해왔으며, 상·하반기로 운영하던 후반제작 지원 사업을 분기별로 운영해 보다 많은 지역 영화·영상물의 후반제작을 지원했다. 또한 기존의 편집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촬영과 색보정의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키 해왔다.

디지털독립영화관 유료 관객수는 총 3만5208명으로 전년 대비 3만 850명에 비해 14% 증가하며 매년 최대 유료관객수를 갱신하고 있다. 이 같은 증가는 관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봉작을 선정하는 '개봉예정작 관객설문조사'가 관객들의 관심을 받으며 많은 작품들이 높은 좌석 점유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영화관은 분석했다. 이 중에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작 '노무현입니다'를 포함, 영화제 상영작 '내 사랑'에

같은 틀리지 않는다' '문라이트'와 같은 작품이 매진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을 선보이는 '매주 만나는 Jeonju IFF'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과 영화제 작품의 거리를 좁혀나가고자 했다. '전주 영화 후반제작 지원 사업'의 경우 보다 많은 작품의 후반제작을 지원하고자 분기별로 진행했다. 올해엔 총 94편을 지원했다. 이중 촬영장비 4편, 후반제작 13편, DCP 3편 총 19편을 선정하여 제작지원을 진행 중이다. 올해 후반제작 지원 작품 중 '주삼치와 함께라면'은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다. '말해의 사계절' '소성리'는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및 제43회 서울독립영화제에 상영됐으며, '소성리'는 부산국제영화제 비프 메세나상과 서울독립영화제 독불장군상을 수상했다. DCP 지원작 '폭력의 씨앗'은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대상으로 뽑혔다. 또한 영화제작소는 편집 기초 교육프로그램 외에 그동안 지역에서 정식으로 배우기 어려웠던 촬영, 색보정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많은 수강생

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에 더해 연 1회 진행되던 교육도 상·하반기로 나눠 편집, 촬영, 색보정 모두를 고루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모든 교육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이론부터 수강생이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였다. 한편 오는 2018년에는 새로운 기획상영 프로그램과 영상·후반제작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먼저 'Jeonju IFF Showcase'는 매월마다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중 국내 미개봉작 1편을 선정하여 상영 및 감독, 배우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한다. 또 토요일 무료상영작 '매주 만나는 Jeonju IFF'는 명칭을 'Made in Jeonju'로 변경하여 후반제작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작품과 지역 영화인들의 작품을 상영하여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지역 영화인들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다양한 시선으로 영화보기'는 개봉영화 한 편을 선정, 촬영·편집 전문가를 초청해 심층적인 영화 이야기를 들을 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 '폭력의 씨앗' 스틸컷



↑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노무현입니다' (왼쪽), '문라이트' 메인 포스터

꾸밈없는 소박함 한국적인 담백함

도립미술관 '이진옥 도예전'

이진옥 작가는 "내가 흙을 만지는 이유는 자유와 그 순간에 나를 잠시 가뒀다기 위해서이다. 흙을 만지고 있는 순간에는 평온해지며 우주의 무중력과 같이 몸과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진다"라고 말한다. 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에는 기 본연의 맛과 장작이라는 불 맛이 더해져 자유로움이 깃든다.



'이진옥 도예전'이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내년 1월 1일까지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청화라는 순백의 바탕에 푸른 빛깔의 안료로 붓 자국이 주는 맛을 살린 작품들과 질박하고 자유로운 형태의 다기 및 식기 등 그동안 작업에 매진한 결과물 30점을 선보인다. 작가의 향아리는 특유의 자연스러운 형태와 순수한 백색의 아름다움 그리고 유려한 곡선을 지닌다. 또한 대칭적이지 않은 조형 속에서 너그럽고 꾸밈없는 소박함과 한국적인 담백한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향아리는 넉넉하게 균형 잡힌 형태, 어깨에서 부풀어 몸통으로 뻗은 선과 단단히 받쳐주는 허리 등으로 조선의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 위아래 다른 두 개를 조합하여 제작되는 엷다지 기법(접합 기법)은 조선시대 달 향아리 제작 기법으로, 작가 역시 이러한 전통 기법으로 달 향아리를 제작한다. 이 같은 제작 기법으로 인해 접합된 부분은 자국이 나타나고 형태는 완벽한 대칭을 이루기가 불가능해지며, 독특한 미감과 미의식으로 작용한다. 작가는 군산대 산업도예학과와 단국대학교원 도예학과를 졸업했다. 춘천미술대전, 관악 현대미술대전 디자인 공예부문, 동화미술대전, 전주전통공예대전, 전북미술대전 등 다수의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사)한국미술협회, 전북도 공예협동조합, 백제도예가회, 전북 전업도예가회 회원이며, (사)한국미술협회 진안지부 사무국장, (사)전업도예가협회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정해은 기자



전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상품으로 개발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맞아
전북문화관광재단, 판매관 개관

전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2017 전북 방문의 해'와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을 설치하고 27일 개관식을 가졌다. 전주 한옥마을 내 남천교 인근(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96-1)에 위치한 판매관은 약 317.5㎡ 부지에 건물 약 158.4㎡(약 48평) 규모로, 관광객의 접근성과 홍보의 가동성·매출액·한옥의 전통미 등을 고려하여 만들어졌다. 특히 내·외부 인테리어는 국내외 관광객의 시선을 유도하고 한옥의 편안함과 정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였으며, 관광기념품 제품 배치 및 정렬은 고객들에게 효율적으로 노출되어 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구성했다. 전북도 관광기념품 100선은 공예품부터 가공식품, 녹색상품 등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다. 기념품은 지역적 특색 및 콘텐츠를 활용한 판매관 입점과 홍보마케팅, 유통판매지원 등의 실질적 지원을 통해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된다. 재단은 올해까지 75개의 상품을 선정했으며, 내년에 25선을 추가로 선정해 관광기념품 100선의 완성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에 교통거점과 연계한 '홍보 전시부스 설치'와 '100선 판매 홈페이지 운영' 등을 실시, 도민과 관광객에게 관광기념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병천 대표이사는 "전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의 개관을 통해 지역도민과 관광객에게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여 관광기념품 산업의 활성화 및 관광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전통문화전당 '수공예 상품 창작 지원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내년 1월 19일까지... 4일 사업설명회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수공예 중심도시 전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수공예 상품 창작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공예작가를 내년 1월 19일까지 모집한다. '수공예 상품 창작 지원 프로젝트'는 독특한 아이디어와 자신만의 상상력을 입힌 새로운 수공예 상품의 개발을 통해 공예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금전적 부담감과 막연하게 생각했던 작가들의 상품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젝트는 두 차례의 심사를 통해 총 15개 팀을 선정

해 1개 팀(또는 개인)에게 3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지원하며, 상품개발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 등 우수한 상품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계획이다. 참가자 모집은 내년 1월 19일까지며, 참가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월 4일 오후 4시 전당 4F 세미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접수방법은 전당 홈페이지(www.ktcc.or.kr)에서 참가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다운받아 e-mail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작가에게는 약 2개월간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정해은 기자

칭찬합니다!

용지 사용부터 친환경용지를 고집하는 EBS의 교육이념을 칭찬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친환경을 실천하는 착한기업이 있어서 칭찬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 교재인 EBS 교재입니다. 친환경용지로 제작된 친환경 교재를 사용하면 우리 아이의 인성은 물론 환경뿐만 아니라 교재에도 저렴해져서 가계부담과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친환경용지 1톤을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46%, 대기오염 물질 74%를 줄일 수 있으며 하루 2,700톤 정도 폐지를 재활용하면 매일 30년 생 소나무 43,000그루를 살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100만톤 중이 수입에 따른 외화낭비를 막을 수 있고 친환경 산업 육성으로 창조경제와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친박 GR인증 받은 친환경용지로 만든 친환경 교재는 일반용지로 만든 일반교재보다 우리 아이들과 환경, 기계, 경제 그리고 국가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통해 더욱 많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더욱 친환경을 실천하는 착한기업을 계속 발굴해서 칭찬 릴레이를 이어가겠습니다.

녹색연합, 6rg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 Korea Recycling Corporate Coalition, Global Leader in Paper 전주페이퍼